

金天理 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考察

千 惠 鳳*

I

朝鮮太祖는 建國한 다음 달인 太祖元年(洪武 25, 1392) 8月2日 功臣都監을 設置하고¹⁾ 開國의 計策과 義舉에 參與하여 成功으로 이끈 功臣들에게 論功行賞하는 업무를 맡게 하였다. 먼저 開國功臣에 대한 功勳의 位次를 審定하여²⁾ 功臣의 稱號를 내렸는데, 1等은 佐命開國功臣, 2等은 協贊開國功臣, 3等은 翊戴開國功臣으로 封하고³⁾ 敎書와 錄券을 내려 褒賞의 恩典을 베풀었다.

그리고 비록 開國의 義舉에는 外地勤務 또는 個人事情등으로 인해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潛邸 때부터 그를 따랐고 도와 주었고 身邊을 지켜 주었고 大位에 오르는 일을 권고 또는 적극 미루어준 功勞가 있는 이들을 가려내어 原從功臣으로 褒賞하는 節次가 잇달아 行해졌다. 그 褒賞에 대한 첫번째의 敎旨는 太祖元年 10月初9日 開國功臣의 稱號를 1·2·3等으로 區分하여 발표한데 이어 곧 내려졌다. 즉 柳賈殊등 28名과 崔允壽등 213名에게 내렸던 敎旨가 바로 그에 해당하며,⁴⁾ 그以後는 選定되는 대로 逐次的인 褒賞이 베풀어졌다. 實錄의 記錄에 의하면 太祖 6年(洪武 30, 1397) 12月에 權近과 僕長壽가 原從功臣에 參與할 것을 自請하여 錄券이 내려졌는데⁵⁾ 아마도 이것이 끝무렵에 해당될 듯하다.

이와같이 原從功臣錄券의 褒賞恩典이 太祖元年 10月初9日부터 同王 6年 12月의 무렵까지 逐次的으로 行해졌는데, 그 사이에 내려진 錄券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 1) 太祖實錄 卷1 元年壬申 8月初2日 辛亥條.
- 2) 太祖實錄 卷1 元年壬申 8月 20日 己巳條.
- 3) 太祖實錄 卷2 元年壬申 10月初9日 丁巳條.
- 4) 太祖實錄 卷2 元年壬申 10月初9日 丁巳條.
- 5) 太祖實錄 卷12 6年丁丑 12月 22日 庚子條.

中 現在까지 알려진 것으로서는 다음의 6種이 있다.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 鄭津原從功臣錄券 筆書本⁶⁾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 金懷鍊原從功臣錄券 筆書本⁷⁾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 金天理原從功臣錄券 筆書本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 [?] 原從功臣錄券(誠庵所藏)
木活字本⁸⁾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 韓奴介原從功臣錄券 木活字本⁹⁾

太祖 6年(洪武 30, 1397) 10月 日 沈之伯原從功臣錄券 木活字本¹⁰⁾

위에서 든 錄券에 있어서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字 賜給의 것이 5種이 있는데, 그중 金懷鍊·金天理의 錄券과 誠庵所藏의 錄券 3種은 內容이 같으나 鄭津·韓奴介의 錄券은 功勞事例의 列舉만 같을 뿐 功臣의 職名單字가 각각 서로 다르다. 말하자면 같은 日字의 錄券이면서도 功臣의 職名單字는 3種이 서로 다르게 表示되어 있는 셈이다. 위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原從功臣의 褒賞이 太祖元年 9月 以後 逐次的으로 行하여지며 個別 紀功敎書 또는 錄券이 賜給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¹¹⁾ 그것이 太祖 4年 閏 9月에 이르러 綜合形式으로 整理될 때 功臣數가 너무 많아 여러 갈래로 區分하여 作成 發給했던 듯하다.¹²⁾ 그러나 그 區分도 嚴格한 것이 못되고 어떤 功臣은 다른 錄券에 重出된 것이 보인다. 그리고 특히 注目하여야 할 것은 꼭 같은 內容

6) 朝鮮史料總覽 第1輯 1. 開國原從功臣錄券(鄭津).

7) 文化財大觀 寶物篇(下) 76. 金懷鍊功臣錄券

8) 近年에 새로 發見된 木活字 印出의 原從功臣錄券인데 아깝게도 첫머리의 本文 몇行을 잃어 錄券賜給者 未詳이다. 그러므로 便宜上 誠庵所藏錄券이라 일컫기로 한다.

9) 梁泰鎮, 錄券에 관한 書誌의 考察 - 朝鮮朝初期의 開國原從功臣錄券을 中心으로 -, 國會圖書館報 第21卷第1號(1984年 1·2月合併號)p.63~69 및 北韓發表의 14世紀 功臣錄券을 中心한 朝鮮活字文化의 考察.

10) ① 文化財大觀 國寶篇(1967) 121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② 朝鮮史料總覽 第1輯 二. 開國原從功臣錄券(沈之伯).

11) 太祖實錄 卷2 元年壬申 9月 21日 己亥條. 開國功臣의 褒賞事例에 準據하였을 때 그와같이 여겨짐.

12) 現在까지 알려진 原從功臣錄券은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以後의 것 뿐임.

의 錄券이면서도 筆書한 것과 木活字로 찍은 것이 있고 또 筆書한 것에 있어서도 行字數에 差異가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功臣都監에서는 錄券의 賜給을 위해 木活字를 만들어 놓고 印出에 사용하였는데, 現傳의 活印 錄券을 보아 알 수 있듯이 活字의 크기와 모양이 가지런하지 않아 組版이 사뭇 까다롭고 또 時間이 걸려 많은 수의 錄券을 限定된 時期에 찍어 내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던 듯 하다.¹³⁾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各筆淨書에 의한 作成이 並行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木活字의 印出인 경우라 하더라도 韓奴介의 錄券은 都監關與者의 職名單字 部分이 木板으로 竝印되고 있으나, 誠庵所藏의 錄券은 그 앞의 功臣의 特典 部分부터 木板으로 竝印되고 있다. 이것은 木活字 製作의 未熟으로 組版이 까다로워 모든 錄券에 共通하는 本文을 木板에 새겨 竝用한 것인데, 그 木板竝用に 差異가 있는 것은 먼저 都監關與者의 職銜名單과 같이 글자가 많고 조밀하여 活字排印이 어려워 板刻 竝用해 보니 아주 便利하고 時間이 節約되었던 듯 하다. 그리하여 다시 그 앞의 共通本文인 功臣特典까지 板刻 竝用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兩者에는 印出의 先後에 差異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2年 뒤인 太祖6年(洪武6, 1397) 10월에 印出하여 沈之伯에게 賜給한 錄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木活字로 排印되어 있다. 이 때는 錄券의 賜給이 거의 마무리되는 무렵으로 量的 또는 時間的인 면에서 별로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限 均整된 印刷體裁를 갖추기 위해 本文 全體를 刻字하여 活印해 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⁴⁾

13) 朝鮮太祖 李成桂가 새로운 王朝를 수립하자 官制를 高麗의 舊制에 준거 제정하고 經籍印出을 관장하는 官廳으로서 書籍院을 두었는데, 建國直後이어서 鑄字印書는 어려웠던 듯하다. 우리가 現在 알고 있는 바로서는 太祖4年(1395) 書籍院에서 白州知事 徐贊이 만든 木活字로 大明律直解 100餘本을 印出 頒行한 것이 建國初期의 活字印刷物이다. 그리고 같은 해에 功臣都監에서도 木活字를 만들어 原從功臣錄券을 印出 賜給하였다. 이렇듯 建國初期는 王朝의 基盤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王朝交替의 混亂狀態에서 나라의 經濟秩序가 回復되지 못했기 때문에 손쉽게 木活字를 만들어 꼭 緊要한 것만을 찍어내는 데 使用하였던 듯하다. 그런데 印書事業의 土臺가 아직 잡히지 않아 그 活字印刷의 技術이 사뭇 未熟하였던 듯하다.

14) 文化財大觀 國寶篇(1967) 121 沈之伯開原從功臣錄券.

이렇듯 錄券에는 筆書한 것과 木活字로 印出한 것 그리고 木活字와 木板으로 竝印한 것의 差異가 있고 또 都監關與者들의 手結에 있어서도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의 差異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나 接紙部分을 비롯하여 誤字의 改書와 落字의 補書 部分에 일일이 『禮曹之印』을 적었는데 그 印章의 크기와 刻字의 모양이 모두 同一하고 또 卷軸의 形質과 紙質도 서로 꼭 같다. 워낙 많은 功臣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賜給했기 때문에 이렇듯 各筆 또는 各印이 생겼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나 功臣都監의 監校를 거쳐 文字의 誤落處와 接紙에 官印을 찍고 手結하여 賜給한 眞本임에 틀림이 없다.

II

이 原從功臣錄券은 成均館大學校博物館 珍藏의 하나이며, 前密直副使인 金天理에게 賜給된 것이다. 金天理가 언제 어떠한 功勞로 原從功臣이 되었는지 實錄에 그에 관한 記錄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고 또 그의 傳記도 未傳되고 있으나,¹⁵⁾ 이 錄券에 頭書된 바에 의하면 그는 從2品의 奉翊大夫의 文散階로서 密直司의 副使 兼 上護軍의 職에 있었으며 그때 李成桂를 도와 충성하는 殊勳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傳存 錄券의 形態는 세로 31.4cm 가로 70cm 內외의 두터운 楮紙 11幅을 이어 붙여 그 全長이 742.1cm이고 앞에 세로 31.4cm 가로 15cm의 裱衣를 더하여 바깥은 靑紗, 안쪽은 淡黃紗로 裝飾 保護하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直徑 2cm가량의 檀木 卷軸을 달고 그 兩端에 直徑 6.3cm의 褐色 前平 後弧 圓形을 붙여 두루마린 종이의 갓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는데, 그중 한 쪽의 圓形은 折半을 잃었다.

本文은 25.2cm 길이의 上下邊 사이에 2.5~3.2cm의 간격으로 朱絲欄을 긋고 錄券賜給者의 職名單字, 功臣들의 功勞事例, 諸功臣의 職名單字, 功臣의 特典 및 都監關與者의 職名單字의 차례로 墨書하고 있으며, 接紙部分과 改字 補字 部分에 일일이 四方 6.5cm의 「吏曹之印」을 朱印하고 있다. 그 總印數는 무려 45個에 이르른다. 그리고 卷

15) 錄券의 頭書에 本貫이 空欄으로 되어 있어 族譜마저 상고할 길이 없다.

裱의 바깥 위에는 「成均館大學校博物館所藏品」의 所有表示가 朱墨으로 捺印되어 있다.

위낙 해묵어 裱衣의 바깥이 部分的으로 헤져 紙片으로 깎고 料紙 上下邊의 위 아래 餘紙 및 本文에 군데군데 若干의 毀損이 생겨 있으며 濕氣로 인한 汚損이 또한 여기저기에 若干 나타나고 있으나, 그 全體의 保存狀態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다.

III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같은 日字의 錄券이라도 本文 內容이 다른 것이 있고 또 같은 內容의 것이라도 誤字의 改書와 脫字의 補書가 잦아 글자의 識別이 어려운 곳이 군데군데 있으며 또한 毀損으로 인해 글자를 部分的으로 잃은 곳도 있으므로 다른 錄券과 對照校補하여 그 全文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功臣都監

功臣前奉翊大夫 密直副使 上/護軍金天理 本貫/
右員乙¹⁶⁾ 原從功臣錄卷〔券〕良中¹⁷⁾ 奇是卧乎事¹⁸⁾ 叱/段¹⁹⁾ 洪
武二十五年十月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五年十月初九日 都
承旨 因景因困²⁰⁾/
口傳/

王旨 義興親軍衛簽節制使允壽 定州都護府使皇/甫蓋等二百十三員亦²¹⁾
勤勞於內 或奔走於外 積/以歲月/
予甚多之 及兇徒結尙謀亂 變生不測 乃能從一二/將相之計 請聲其
惡 兇徒伏辜 以勞以功 在所當賞 其功臣之號 褒賞之典 有司
舉行爲良如/教事是去有等以²²⁾/

16) 乙(을, 를) …을, …를

17) 良中(아해) …에, …에서

18) 是卧乎事(이누은일) …인일, …이은일

19) 叱段(판) …은, …는

20) 次知(차지) …擔當, …主裁, …關與하는

21) 亦(이, 가) …이, …가

22) 爲良如教事是去有等以(하야다이산일이거이신들로) …하라고 하옵신것이므로

王旨內事意乙用良²³⁾ 啓受使內向事²⁴⁾ 出納是白齊²⁵⁾ /

洪武二十六年十二月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 / 二十六年七月十二日 都承旨李稷次知 /
口傳 /

王旨 南陽伯永通 領三司事宗源等一百二十七員亦 / 自辛氏竊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 /
於 /

予 喻德宣譽 馴致今日 功亦不細矣 褒賞之典 有 / 司舉行爲良如教是齊²⁶⁾ 洪武二十六年七月二 / 十七日 左承旨李勳次知 /
口傳 /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創始之初 是宜先舉 / 其功 判開城府事仁烈 器宇雍容 而有遠見 自 /
予出將入相之日 乃以舊識 注意 /

寡躬 捍衛之功 誠有焉 判內侍府事師幸 於 /
踐祚之初 闕則粗立而未備 歷舉前朝盛時之宮儀 / 損過益不及 而飾 / 內助之治 功可錄也 同判內侍府事尹祥 · 李匡 知內侍 / 府事安居等 雖未及此 補助之益 蓋多有之 亦 / 可錄也 三司左僕射仲和 前門下贊成事石璘等 / 捌員亦 自辛氏竊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 / 注意於 /

予 其褒賞之典 有司舉行爲良如教是齊 洪武 / 二十六年七月二十 [九] 日 左承旨李勳次知 /
口傳 /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創始之初 是宜先舉 / 其功 前判三司事仁裕 前判開城府事韓葦等 / 六十一員亦 自辛氏竊位 亂極思治之際、安危皆 / 注意於 /

予 喻德宣譽 馴致今日 功亦不細矣 檢校密直副使 / 方澤 檢校中樞院副使乙俊等十一員亦 方 /

23) 乙用良(을쓰아) ... (으)로써, ...을 따라

24) 使內向事(바리안일) ... 시킬일, ...하게 할일

25) 是白齊(이삼제) ... 이옵니다, ...이십니다, ...하시다

26) 爲良如教是齊(하야다이산이제) ... 하라고하옵신것이옵니다, ... 하라고하시었다.

即位之時 俱在日官 必不疑貳 謹卜天時 勸登／大位 其功亦可賞己
其褒賞之典 有司舉行爲良如／教是齊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九日
左承旨李／勲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創始之初 是宜先／舉其功 前典書天
守·天祐等五百九十五員亦 於／

予出將入相三十餘年 許身以死 備嘗艱險 捍衛／

寡躬 俾保生民 又致坐成代業 式至今休 功誠不能忘／也 或適遠而
舉義之日 雖有不與焉者 前功安／敢畧乎 有司宜悉載賞典亦教事是
白齊²⁷⁾／ 洪武二十六年八月十日 左承旨李勲次知／

口傳／

王旨 敷奏以言 明試以功 而報其庸者 古之道也 判／校書監事文中
大將軍趙卿等 自／

予在僭邸 安危注意 艱險不避 以至今日 其褒賞之／典 有司舉行爲
良如教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 使內向事 出納是白齊 洪武二十七／年正月日 都
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九日 左承旨李勲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創始之初 是宜先舉／其功 前鷄林尹
李觀 檢校參贊門下府事茂宣／等十員亦 自辛氏竊位 亂極思治之
際 安危注意／

於／

予 喻德宣譽 馴致今日 功亦不細矣 其褒賞之典 有司／舉行爲良如
教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 使內向事 出納是白齊 洪武二十七／年三月日 都
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六年八月十／五日 左承旨李勲次知／

口傳／

王旨 前門下贊成事安翊 前檢校參贊門下府事希古／等十一員亦 自辛
氏竊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

予 喻德宣譽 馴致今日 功亦不細矣 其褒賞之典／ 有司舉行爲良如

27) 亦教事是白齊(여이 산일이 삼계) ...라하옵신일이옵니다, ...라하신것입니다.

教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 使內向事 出納是白齊 洪武／二十七年正月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六年八月十七日 左承旨李勲次知／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創始之初 是宜／先舉其功 前書雲正金寶 前軍器少監成乞／等三十九員亦 於／

予出將入相三十餘年 許身以死 捍衛／

寡躬 俾保生民 又致坐成代業 式至今休 功誠不能／忘也 或適遠而舉義之日 雖有不與焉者 前／功安敢略乎 其褒賞之典 有司舉行爲良／如教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 使內向事 出納是白齊 洪武／二十八年二月初九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十八年二月初五日 都承旨韓尙敬次知／口傳／

王旨 商議中樞院事彥修員乙良²⁸⁾ 功臣邦慶例 以／施行爲良如教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 使內向事 爲等如²⁹⁾出納是白有／亦³⁰⁾／

王旨內思審是白內乎矣³¹⁾ 右事叱段³²⁾ 上項³³⁾ 功臣等亦³⁴⁾ 或／自／

殿下潛邸之時 服勤內外 積以歲月 及其兇徒謀亂 卽／從一二將相之計 請聲其罪 以沮其謀爲白齊³⁵⁾ 或／自辛氏竊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注意於／

殿下 喻德宣譽 馴致今日爲白齊 或於／

殿下出將入相三十年間 許身以死 不避艱險 捍衛／

殿下 馴致今日爲白齊 或方／

殿下即位之初 闕則未備 而損益前朝盛時之制 以飾／宮儀爲白齊 或

28) 乙良(을랑) …을랑, …을(를)

29) 爲等如(하트다, 하트러) …같이, …함께, 모두

30) 是白有亦(이삼이선이여) …이시었으므로, …이엇삼기에, …이엇으니

31) 是白內乎矣(시삼오되) …시움서되, …이서되

32) 事叱段(일판) …일은

33) 上項(웃목) …위의項目, 위 조목

34) 等亦(들이) 들이, 등이

35) 爲白齊(하삼제) …하삼, …하움실것이다, …하시다

方／

殿下即位之時 在於日官 謹卜天時 勸登／

大位爲白齊 爲等如／

王旨內 兒如³⁶⁾ 功勞可尙是白教等用良³⁷⁾ 更良³⁸⁾ 功臣職名／單字

申／聞爲白叱乎亦中³⁹⁾ 科科以⁴⁰⁾ [落點]／

分例教矣⁴¹⁾ 前府使皇甫蓋·陳義貴·李滉·洪保卒·檢／校侍中李崇 故
檢校門下府事崔茂宣 前門下致／仕金得齊 前密直尹就·權鈞·柳
蕃·觀察李至 卽制／使李希忠 前密直副使郭璇·權鉉·權顯·金
天理·檢／校中樞院使金之瑞·原賓·柳方澤·盧乙俊 前開／城尹
李舒原·柳翹·鄭義 前節制使 丁令孫 故檢校密／直副使周原·
前簽節制使朴鄰祐 前典書姜儒／·廉廣原·朴誼·尹順·田饒·朴
悅·呂遇·辛良貴·奇瑛／·高義·鄭原輔·崔閔文·安仁吉·
鄭復·閔仲萱·洪／沙顏·洪承祐·崔天·盧承慶·康允柱·任天年
姜陽／·權衷·趙瓊·禹文粹·金遜·朴之原·朴原植·安吉·申夏
黃／允奇·朴萬龍·孫原忠·郭萬慶·金安理·洪章善·金／命山·
李原實·金子河·安義·權遜·金居道·金智山·趙／仁秀·林茂茂
許準·張原甫·前兵馬使李龜鉄·前／上將軍康侯 前判書金暄·
前門下評理柳惠孫 前／提學李誠中 牧使李龜崙·金懷鍊 前牧使
李衍修／·朴義龍·金之鉉·蔡克敬·丁子偉·鄭原厚·金斗南·姜／
思德·曹仲生·黃居中 故牧使李丘直 判事李愨·曹／庶·池
[巨]源·前判事玉山·奇石抹·成彥·金開·李艷·黃琥／·梁原
奇·李有芬·李英奇·崔思哲·金南用·楊天祿／·朴寅吉·朴原吉
安世·高永壽·李原貴·朴彥·朴清／·邊也仙不花·鄭珣·李延哲
李之用·李興林·郭允庇／·朴天祐·李鷹·徐仁庇·金原·梁原守
金原龍·成乙／寶·崔松幹·仁平金之鉉·李文 大將軍高圖禮 前／
卿鮮于吉·尹祐·金膺·李仁祐·崔安雨·朴理·李瑀·嚴／永富·

36) 貌(兒)如(가모여, 죽다히) ...와같이, ...처럼, ...대로

37) 是白教等用良(이삼이산들쓰아) ...이시움으로써, ...이음신마로써

38) 更良(가새아) ...다시

39) 爲白叱乎亦中(하삼은여해) ...하음신그때에

40) 科科以(차차로) 날날이, 일일이

41) 教矣(이사되, 이시되) 이음시되,

趙之玉·丁夢吉·崔混·姜廉·朴鳳·魯彥 諫議吳罔圖·韓彥·蔡仁哲·金德成·嚴仁敬·前監仇自平 朴乙/生·池哲·李玉·李允成·李英·崔深 昌原祐·李思恥·白/玉·金甲生·金順任 地藏李都介·黃早雨·尹福海·朴光/祐·金哲·李芬·崔原富·金哲·李順吉·金用富·前知州/事李渾·李白卿·朴原吉·李之剛·文石柱 前令都云/壽·朴英吉·辛天乙·張天奇·故萬日鄭田罔 前正李/輜·趙千·咸原·文之祐·朴云生·裴允桂·咸承彥·白漢鄰·朴允/遜·金仁浩·崔原濕雲伯不花·李原祥·金仲南·閔天/生·辛用儒·崔思潤·劉阿郎介·廉公柱·辛之奉·玄用富/·鄭渚·尹哲·金柱·朴延·任世珍·徐天吉·徐承啓·洪天倫/·付天祐·朴文贊·崔毛多吾 知州事泰吉修·李陟·黃/演·前左尹 朴文吉 鄭允富·盧瑛 前尹白原·池福龍/·池得龍·正 劉早雨 前總郎 李啓林·金自珍·辛原吉/前將軍 金久珍·韓興寶·朴依 前少監 權之祐 任得富/·朴成龍·吳臣傑·白仁寶·金罔·罔仁包·金乙忠·盧英伯/·金貴生·金與·朴眞啓·崔原者 罔得龍·金敬德·金仁/儉·金生麗·張仁貴·金章·方龍·金成吉·尹奇·辛鄰·朱萬/姜罔·金原罔·韓大·安干·韓順·李成傑·崔罔守·前少卿/李得罔·李興門·朴桂孫·龍天奇·廉邦吉·李罔·李松/·姜好舍好·李良·將軍黃似蘭·李衍 內史舍人安東/少監盧湘·副正李眞杞 前少尹黃得雨·罔德生·金/贊延 上左李英乙·金自和 前副令林逸·李天彥·廉/之甫·金之彥·金斤 前副正 朴文柱·李長壽·李英發/·王壽龍·朴得淵·權祐·張原祿·金連·李加勿·金仟·崔/也吾乃·朴乙冲·罔臣啓·朴祿·李原己·楊震·劉玉·徐連·金/原迪·林之侯·崔乙奇·劉仁吉·罔根·金連·李南秀·金/呂·崔允珍·朴和·朴興·孟守·石承守·金原奇·韓天奇·崔/澤·張良·邊永奇 訓練館司直 李陽生 三軍府鎮撫/宋興寶 前正郎金穩 前田丞 李端·前牧判官罔勸 承[丞]/金堆·張思彥·中郎將 金亮·李得貴·金希·金逸·金南逸/·朴臣忠·罔得雨·金重器·金貴·金溫·朴順和·李罔興 前監/務朴陽生·前中郎將 吳允義·崔原奇·李原中·林乙成/·李仁祐·李之奉·申程·金原富·朴興達·金仁甫·邊成萬/·鄭天富·金天延·宋仁祐·孔奇·李芸·尹之原·金成柱·庚/天老·李仁守·池原魯·成佐·張順雨·李

德龍·朴允卿／·金成吉·金南澤·李光孫·李英守·李湖·韓良啓·朴彥／·李之彥·廉成萬·朴良富·李云甫·方之信·嚴仁甫·金／呂生·嚴侃·李原龍·金天命·趙原吉·朱原奉·孫仁呂·金／南玉·金安·張乙珍·李夫介·方天·姜和尚·梁啓·金思奇／〔朴英眞·朴天·崔安彥·文成哲·金思彥〕·金啓·邊呂·崔克儒·陳臣彥·金乙富·金仁英·邊原·嚴／公琇·金庇·朱大刑曹佐郎安升慶·前佐郎李士剛 丞／李公裕 注簿高杰·柳原直·張俊·許孜·故中郎將 金光／利 前注簿秦斯立 郎將 金寶景·林時大·趙成玉·辛／思義·沈仁吉·李云龍·朱方吉·徐金剛·安天祐·徐仁奇／·魏仁柱·韓原吉·曹韞·咸吉甫·劉末巾·林仁吉·金義山／·金取·金玄祐·辛天奉·姜臣柱·金富·全萬·李自芳 原奉／奉思義·金彥富·李原圀·孟順富·辛思貴·原祐·金原甫／·前郎將 孔成柱·李萬·李夫介·孟良啓·金靖·徐龍·徐／天起·沈龍·韓八主·韓加大·楊加里·李英寶·文哲·李連雨／·許富·金佐·金乙光·金成·李原立·韓乙脚·張益冲·金重／寶·梁仁柱·申玄啓·李萬·韓得啓·原天啓·安吉·辛得／奉·羅進·黃乙珍·李乙奉·申守 原天守·朴仁奇·黃乙仲／·圀用富·咸仁永·李哲·崔仁甫·朴丁·辛天己·朴奇·趙萬／·崔圀·林景·朴仁寄·蔡河生·仁奉·韓原·吳原吉 別／將吳逸·嚴英守·金思支·金原卿·沈順景·李英順·李果／珍·孟彥·尹尙俊·朴仁被·李原貴·金麟·金希·黃甫仁·韓／均·原奉·李筌·辛光富·鄭時雨·鄭文吉·金南·張翼·李／彥林 河進·魯仁儉·全龍奉·前別將 劉時賀·劉大富／·趙加勿·李萬自·李英吉·金龍·金安守·梁原奇·韓甫／·羅吾·金余愁·李原魯·都乙赤·林仁祐·劉原奇·李／仁守·邊漢·劉金·田永奇·劉羅知·劉於山·朴原祐·李／仁起·郭天起·申吉富·高豆彥·朴原吉·黃甫介·高松／呂·金暄·金哲·曹漢·嚴祿·朱奉·李石啓·金守·文赫／·宋天·林原奇·金南用·張原·李逢吉·石甫介·鄭龍·朴／仲·方龍·尹圀圀·全松·姜原·李松·李原·安千·金冲·韓／倫·孟原圀·金迪·金乙富·高天富·朴冲·金天儉·崔萬·李天／住·金誠柱·林豆彥·車萬·金奇·崔原守·林成乙·吳永具／·楊得富·李白·崔原禮·金思衍·韓乙富·申楊德·金

仲富 / 金祿 · 金啓富 · 金斗 金田 · 全哲 · 車仁 · 金延 · 李富 · 權誠 / 祐 · 李原吉 · 閔田 · 朴奇鄰 · 宋仁儉 · 孟天富 · 金原吉 · 金永 / 金可賢 · 公成祐 · 金貴英 · 尹天雨 · 徐得仲 · 宋原富 · 天柱 / 全陽 · 張守 · 盧英富 · 咸千 · 金廻守 · 夫介 · 咸千甫 · 劉田吾 / 李之松 · 毛河照 · 散員 · 金乙富 · 金仁弼 · 劉德興 · 文義 · 尹 / 奉 · 崔遊金富 · 李倬 · 咸龍琦 · 盧永富 · 高天 · 朴忠連 · 金 / 天奉 · 黃天奇 · 李圉 · 園丁 前散員 徐圉景 · 金永甫 · 姜 / 萬 · 林芳啓 · 李生 · 崔乙奉 · 林郎官 · 禹碩 · 崔延守 · 金龍奇 / 金守文 · 李原吉 · 金誠彥 · 廉伐介 · 園林 · 孫柱 · 李松 · 金奉 / 金文生 · 尹天 · 李因富 · 園仁奇 · 李原 · 金成柱 · 韓君禮 · 韓永貴 / 李仁 · 韓仁富 · 朴乙生 · 朴柱 · 崔天王 · 金誠柱 · 金玉 · 孟進 / 金乙之 · 金貴生 · 辛奇 · 金圉甫 · 園原 · 池得千 · 李逢順 / 李原邑 · 金音松 · 李天雨 · 方長守吐也介 · 前伍尉 朴 / 生員等乙⁴²⁾ 子孫蔭職 / 宥及後世爲良於爲⁴³⁾ /

分例 教事是白有良⁴⁴⁾ 右員等乙良 原從功臣 /

稱下 教是⁴⁵⁾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 宥及後世 教是齊⁴⁶⁾ 立碑紀功 向事乙良置⁴⁷⁾ 各掌 / 官出納爲白遣⁴⁸⁾ 錄券成給 爲良如⁴⁹⁾ 諭乃⁴⁹⁾ 聞爲白叱乎亦中 洪武二十八年三月初七日 右承旨 /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經筵參贊官寶文閣直 / 學士知製教知戶曹事臣閔汝翼伏奉 /

王旨 依申教事是白有良⁴⁴⁾ 錄券施行 /

洪武貳拾捌年 閏玖月 日 /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修義副尉與威衛右領散員鄭 /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神虎衛精勇別將 朴 (手結) /

判官宣教郎閣門通贊舍人 朴 (手結) /

判官通德郎禮曹正郎 崔 (手結) /

42) 等乙 (등을) ... 등을

43) 爲良於爲 (하야하, 하야려하어) ... 하려하어

44) 教事是白有良⁴⁴⁾ (이산일이삼이사아금) ... 이라하신일이라고,
...이옵신일이옵기에

45) 教是⁴⁵⁾ (이시며) ... 이옵시며, ... 하옵시며

46) 教是齊 (이시제) ... 이옵소서라하십, ... 라하옵시다

47) 向事乙良置 (안일울안두) ... 할일도, 하는일도

48) 爲白遣 (하삼고) ... 하옵시고, ... 하시고

49) 爲良如教諭乃 (하야다이산지나) ... 하라고하옵신것이나,
... 하라고하신것이나

副使奉正大夫禮曹議郎	姜 (手結) /
副使奉正大夫戶曹議郎	朴 (手結) /
使翊戴開國功臣通訓大夫判校書監事直集賢殿知書籍院事兼藝文 春秋館編修官	咸 (手結) /
判事推忠協贊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	洪 (手結) /
判事推忠翊戴開國功臣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集賢 殿學士	吳 (手結) /
吏曹 /	
佐郎承議郎考功佐郎	李 /
佐郎承議郎兼尙瑞直長	尹 /
正郎通德郎考工正郎	柳 (手結) /
正郎通德郎	金 /
議郎奉正大夫世子左弼善知製教兼藝文春秋館編修官	徐 (手結) /
議郎奉正大夫	李 (手結) /
知曹事 /	
典 書 /	
典 書 /	
兼典書 /	
判事 /	
別監 /	
翊戴開國功臣通政大夫中樞院左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尹集賢殿 直學士知製教知兵曹事	閔 (手結) /
保功將軍龍騎巡衛司大將軍	金 /
朝散大夫司憲侍史	鄭 (手結) /

위의 本文을 條目式으로 分析하여 보면 1) 功臣의 功勞事例, 2) 功臣의 職名單字, 3) 功臣의 特典, 4) 都監關與者의 職名單字 및 手結로 가름되는데, 그 차례에 따라 자세하게 考察해 보기로 하겠다.

1) 功臣의 功勞事例

錄券의 머리에 長皇하게 수록된 功勞事例는 擔當承旨가 口頭로 發表한 王旨를 都評議使司가 出納한 것 중에서 取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原從功臣을 選定하는 基準이 되었다. 그 事例는 대체로 承旨가 口傳한 日字順으로 列擧되고 있으며 이를 功勞內容別로 聚合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朝鮮太祖가 潛邸로 있었을 때 朝廷 안 또는 바깥에서 多年間 勤務하면서 兇惡한 무리들이 結黨하여 언제 變亂을 일으킬지 豫測하기 어려움을 보고 1·2 將相의 計策에 따라 그 간악함의 聲討를 奏請하여 마침내 그 무리들을 伏罪케 한 功勞.

① 太祖元年(洪武 25, 1392) 10月初 9日 都承旨安景恭 口傳王旨의 「義興親軍衛簽節制使崔允壽·定州都護府使皇甫蓋等 213員」⁵⁰⁾

② 太祖 4年(洪武 28, 1395) 2月初 5日 都承旨韓尙敬 口傳王旨의 「商議中樞院事洪彥修는 功臣 尹邦(方)慶例⁵¹⁾에 의거 褒賞施行」(尹邦(方)慶功勞事例는 또한 다음의 다)에도 該當함).

나) 辛禍가 王位를 도적질하여 世上이 極度로 어지러워 좋은 政治를 생각하게 될 때부터 世上의 安危가 모두 自己(朝鮮太祖)에게 달려 있음을 注意하고 百姓들을 德으로 가르쳐 깨우치는 한편 評判을 좋게 퍼서 오늘에 이르게 한 功勞.

① 太祖 2年(洪武 26, 1393) 7月 12日 都承旨 李稷口傳王旨의 「南陽伯洪永通·領三司事安宗源等 127員」⁵²⁾

② 太祖 2年(洪武 26, 1393) 7月 27日 左承旨 李勲口傳王旨의 「三司左僕射權仲和·前門下贊成事成石璘等 8員」⁵³⁾

③ 太祖 2年(洪武 26, 1393) 7月 29日 左承旨 李勲口傳王旨의

50) 太祖實錄 卷 2, 元年壬申 10月初 9日 丁巳條.

51) 太祖實錄 卷 2, 元年壬申 10月初 9日 丁巳條.

52) 太祖實錄 卷 4, 2年癸酉 7月 22日 乙丑條.

53) 太祖實錄 卷 4, 2年癸酉 7月 27日 庚午條.

「前判三司事姜仁裕·前判開城府事韓載等 61員」⁵⁴⁾

④ 太祖2年(洪武26,1393)7月29日 左承旨 李勳口傳王旨의 「前鷄林尹李觀·檢校叅贊門下府事崔茂宣等 10員」

⑤ 太祖2年(洪武26,1393)8月15日 左承旨 李勳口傳王旨의 「前門下贊成事 安翹⁵⁵⁾·前檢校叅贊門下府事趙希古等 11員」.

다) 朝鮮太祖가 出將入相하였던 30餘年間 麾下에서 죽음으로 몸을 바쳐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防禦해 주고 百姓들도 잘 保護하였으며 또 앉아서 쉽게 大業을 말아 法式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날수 있게 한 功勞.

① 太祖2年(洪武26,1393)7月27日 左承旨 李勳口傳王旨의 「判開城府事禹仁烈」⁵⁶⁾

② 太祖2年(洪武26,1393)7月29日 左承旨 李勳口傳王旨의 「前典書姜天守·李天祐等 595員」⁵⁷⁾

③ 太祖2年(洪武26,1393)8月16日 左承旨 李勳口傳王旨의 「判校書監事宋文中·大將軍趙卿等」⁵⁸⁾

④ 太祖2年(洪武26,1393)8月17日 左承旨 李勳口傳王旨의 「前書雲正金寶⁵⁹⁾·前軍器少監成乞等 39員」

⑤ 太祖4年(洪武28,1395)2月初5日 都承旨韓尙敬 口傳王旨의 「商議中樞院事 洪彥修는 功臣 尹邦(方)慶例에 의거 褒賞施行」(尹邦(方)慶功勞事例는 가)와 다)에 각각 該當하므로 重出한 것임).

라) 朝鮮太祖가 바야흐로 卽位하러 할때, 日官으로 있으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確固한 心念으로 天時를 삼가 謹쳐서 大位에 오르도록 勸告한 功勞.

① 太祖2年(洪武26,1393)7月29日 左承旨 李勳口傳王旨의 「檢校密直副使柳水澤·檢校中樞院副使盧乙俊等 11員」⁶⁰⁾

54) 太祖實錄 卷4, 2年癸酉7月29日 壬申條.

55) 太祖實錄 卷4, 2年癸酉8月15日 戊子條.

56) 太祖實錄 卷4, 2年癸酉7月27日 庚午條.

57) 太祖實錄 卷4, 2年癸酉7月29日 壬申條.

58) 太祖實錄 卷4, 2年癸酉8月初10日 癸未條.

59) 太祖實錄 卷4, 2年癸酉8月17日 庚寅條.

60) 太祖實錄 卷4, 2年癸酉7月29日 壬申條.

마) 朝鮮太祖가 王位에 오른 初期에 關內의 制度가 대강 마련되어 未備하였는데 前朝 全盛期の 宮中儀式을 두루 살펴 지나친 것은 줄이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서 內助의 다스림을 한 功勞.

① 太祖 2年(洪武 26, 1393) 7月 27日 左承旨 口傳王旨의 「判內侍府事 金師幸」⁶¹⁾

② 太祖 2年(洪武 26, 1393) 7月 27日 左承旨 口傳王旨의 「同判內侍府事 尹祥·李匡·知內侍府事安居等」⁶²⁾ (寄與가 金師幸에 미치지 못하나 補助의 구실이 컸음).

2) 功臣의 職名單字

功臣의 職銜名單은 위의 本文에서 볼 수 있듯이 前定州都護府使 皇甫蓋부터 시작하여 前伍尉 朴生員에 이르기까지 무려 695名에 이르고 있다. 功臣들의 職銜은 東·西班牙의 高位職에서 下位職에 이르기까지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名單가운데는 同名異人인지 또는 重出인지 알 수 없으나 같은 이름이 한 錄券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錄券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테면 金哲의 경우는 이 錄券에서만 해도 세번 나타나고 있으며, 前伍尉 朴生員의 경우는 本文 內容이 전혀 다른 太祖 6年(洪武 30, 1397) 10月 日字의 沈之伯原從功臣錄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³⁾ 뒤의 예는 확실히 重出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功勞事例別로 功臣의 選定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러갈래로 누차에 걸쳐 綜合形式의 錄券이 成給되었으니 重出도 不可避했을 듯 하다. 그리고 木活字 印出이든 筆書 作成이든 간에 名單字에 異字 또는 誤字가 많이 나타나서 改書하고 禮曹之印을 安印한 것이 頻出된다. 그토록 監校를 했지만 아직도 異字 또는 誤字가 보인다. 이 錄券의 名單 끝에 수록된 金音松과 李天雨로 예를 들어 보자. 같은 날자의 같은 내용의 錄券이면서도 前者는 誠庵所藏錄券과 金懷鍊賜給錄券에서 金音松으로 되어 있고, 後者는 誠庵所藏錄券에서는 本 錄券과 같이 李天雨로 되어 있으나 金懷鍊賜給錄券에서는 李天祐로 되어 있다.⁶⁴⁾ 이렇듯 이름에 同音異字가 頻出하여 改書 安印

61) 太祖實錄 卷 4, 2年癸酉 7月 27日 庚午條.

62) 太祖實錄 卷 4, 2年癸酉 7月 27日 庚午條.

63) 朝鮮史料總覽 第1輯 二, 開國原從功臣錄券(沈之伯).

64) 文化財大觀 寶物篇(下) 76. 金懷鍊功臣錄券.

한 것은 功臣數가 워낙 많은데도 기인하지만, 특히 學識이 알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西班牙의 下位職 人物들이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 이 錄券을 賜給 받은 張本人인 金天理는 功臣職名單字의 앞部分에 序列되고 있으며, 前密直副使의 職銜 아래를 보면 郭旋 權鉉 權顯의 다음에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위에서 든 다섯가지의 功勞事例중 어느 것에 該當되는지 實錄에 그의 傳이 未收되고 있어 알 수 없음이 못내 개운치 않은 일이다.

3) 功臣의 特典

原從功臣의 特典이 職名單字의 다음에 要記되고 있다. 功臣의 父母 그리고 아내에게 封爵하고 子孫들에게 蔭職을 주며 後代의 子孫들이 비록 罪를 犯한다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赦免하는 特權을 길이길이 누리며 碑를 세워 功을 記錄하는 特典의 대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字로 鄭津에게 賜給한 錄券을 보면 「原從功臣 中樞院副使尹邦慶例以 田三十結 奴婢三口爲等如 各各賞給爲於爲」⁶⁵⁾ 같이 田畝 30 結과 奴婢 3 口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또 같은 日字로 韓奴介에게 賜給한 錄券을 보면 「大將軍 李和英例以 十五結爲等如 各各賞給爲良於爲」와 같이 田畝 15 結을 표시하고 있다.⁶⁶⁾ 그리고 太祖 2年(洪武 26, 1393) 7月 22日에 내린 教旨를 보면 辛禍가 頑凶狂悖하여 그 臣下인 崔瑩과 더불어 遼陽을 侵犯하려할 때 이를 막았던 自己(朝鮮太祖)를 支持하고 나아가서 王으로 推戴해준 이들 즉 위에서 든 功勞事例 나)에 該當하는 原從功臣들을 1·2·3 등으로 位次를 가리고 褒賞의 恩典을 舉行케한 例도 볼 수 있다.⁶⁷⁾ 이러한 一聯의 記錄을 상고하면 原從功臣이라 하여 一括의으로 賞給한 것이 아니라 開國功臣의 경우에 준거하여 差等있게 실행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開國功臣의 경우 1·2·3 等功臣에게 배풀어지는 特典은 殿閣에 肖像

65) 朝鮮史料總覽解說 第1輯 1. 開國原從功臣錄券(鄭津) p. 4.

66) 「14世紀 功臣錄券을 中心한 朝鮮活字文化의 考察」卷末原文 參照.

67) 太祖實錄 卷 4, 2年癸酉 7月 22日 乙丑條.

을 걸고 碑를 세워 功을 紀錄하며 田結과 奴婢를 주고 父母·妻에게는 封爵 그리고 直系 또는 非直系子孫들에게는 蔭職 또는 祿用을 等級에 따라 差異있게 授與하였다. 또 丘史 直拜把領의 數도 그 等級에 따라 人員數가 각각 달랐던 것이다.⁶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原從功臣도 1·2·3 등의 位次를 가렸으니 開國功臣의 경우에 準據 또는 參酌하여 褒賞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太祖가 原從功臣인 商議中樞院事 黃希頌에 대한 褒賞을 命할 때, 요사이 原從功臣의 事例를 稱下하고 있는데 내가 功을 보답하는 뜻에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히 不滿이라 前提하면서 開國二等功臣인 尹虎의 例를 아래로 일컫게 하라는 分부를 내린 것으로 보아서도 그와 같이 여겨진다.⁶⁹⁾

4) 都監關與者의 職名單字 및 手結

이 끝 部分은 功臣都監의 關與者들이 各己 自身の 職名單字欄에 手結하여 錄券의 賜給을 立證해 주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어느 功臣錄券을 보던간에 關與者 全員이 手結하기란 매우 어려운듯 빠진 것이 있는가 하면 그 手結의 유무도 錄券마다 각각 다르다. 이 錄券에서도 5명이 手結을 하지 않았다. 當時의 印刷施設로서는 695명이나 되는 功臣들에게 同時에 木活字로 排印하여 나누어 주기 어려워 功臣都監에서 作成한 本보기에 의거 各筆淨書하여 가지고 오면 本文의 謬落을 監校 安印한 다음 署名해 주었는데 그 때 不在中인 官員으로 부러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錄券마다 그 手結의 받고 못받음에 差異가 있지만, 署名된 手結만은 다른 것과 對照하여 서로 꼭 같다.

IV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原從功臣錄券이 現在 5種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 같은 日字의 錄券이면서도 功勞事例의 다음에 수록된 功臣者의 職名單字의 內容이 전혀 다른 것이 있고 또 같은 內容의 錄券이면서도 木活字 印出과 各筆 淨書의 差異가 있으며 이것들은 本文의

68) 太祖實錄 卷2, 元年壬申9月16日 甲午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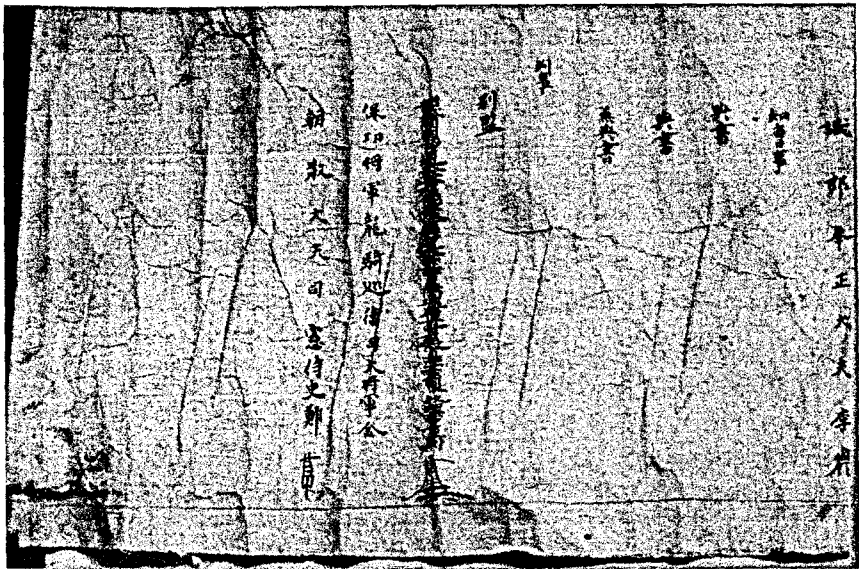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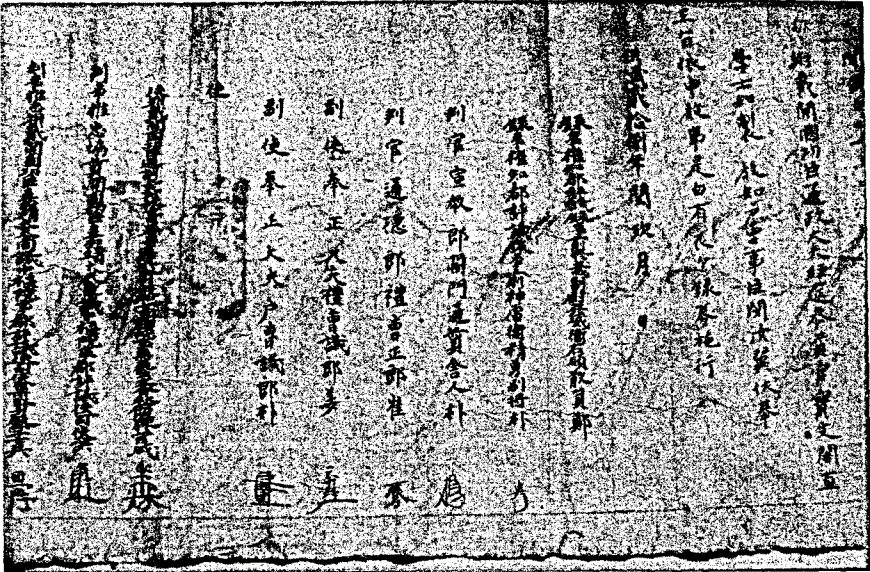
69) 太祖實錄 卷2, 元年壬申11月19日 丙申條.

誤字 改書와 落字 補書 그리고 毀損으로 因한 文字의 逸失이 서로 달라 各기의 書誌的 價値가 크게 認定되는 바 그 모두가 한결같이 貴重한 朝鮮初期의 古文書로 評價된다. 그리고 本 錄券만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實錄에 올려 있지 않은 功勞事例가 수록되고 있다. 太祖 2年 7月 29日의 教旨에서 前鷄林尹李觀과 檢校叅贊門下府事崔茂宜等 10名의 功勞事例를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太祖 2年 8月 15日의 教旨에서 前檢校叅贊門下府事趙希古等 11名과 同月 17日의 教旨에서 前軍器少監成乞等 39名의 功勞事例를 각각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太祖 4年 2月初 5日의 教旨에서 商議中樞院事洪彥修等の 功勞事例를 발표한 내용 등은 功臣錄券에 의해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⁷⁰⁾ 또 功臣들의 人物에 관하여도 그 大部分이 實錄에는 未傳되고 있으며 이것이 建國初期의 唯一한 功臣傳記資料가 되는 점에서도 그 資料價値가 大體하게 評價된다. 뿐만 아니라 이 錄券은 文章이 吏文式으로 되어 있고 그 本文가운데 吏讀가 많이 쓰여지고 있으므로 麗末鮮初의 吏讀研究에 있어서도 소중한 資料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70) 太祖 4年(洪武 28, 1395) 閏 9月 日字의 原從功臣錄券의 功勞事例 列舉에는 齊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圖 1〉 錄券의 앞部分



<圖 2> 錄券의 뒷部分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Kim Chōlni's Wōnjong Kongsin Nockōn

Chōn, Hye-bong*

The Wōnjong Kongsin Nockōn (原從功臣錄券) is a kind of the official document to granting a privilege and stipend which was awarded in 1395 to Kim Chōlni (金天理), devoted his master who was latter set on a throne of the first King Taejo of Yi dynasty.

In the present study are concretely verified that the Nockōn is bibliographically invaluable archives of early Yi dynasty in the viewpoint of the followings:

- 1) Unique material of biographies covering those meritorious retainers to deserving the foundation of Yi dynasty.
- 2) Worthy material of history including the meritorious examples on the founding of a new Kingdom which were omitted in the true record of the Yi dynasty.
- 3) Priceless material of philology written in the Korean ancient languages to use the letter of Yi-du (吏讀).

* Professor of Library Science, Sun Kyun Kwan University.